

남녀 은퇴자의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고찰

성미애(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교수) · 하지승(한국방송통신대학교 TA)

본 연구는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젠더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본 후 노년기 가족생활 교육프로그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장이 생활의 중심이었던 직장인에게 은퇴는 곧 생활의 중심과, 이전까지 지속해 온 가족부양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위기의 사건이 된다. 특히 최근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중노년기 이후의 상당기간을 은퇴한 상태로 살아야 하는데, 현재 은퇴한 남성과 여성은 모두 생산성을 중시하던 직장 중심의 문화에서 살아온 세대로, 다른 어느 세대보다 은퇴 후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기 쉽다. 한편, 역사적으로 볼 때 여성은 가정경제에 큰 기여를 하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생활 이데올로기가 작용하여 직업인보다는 주부로 인식된 측면이 크다. 따라서 여성의 은퇴 후 생활은 남성과 다른 메카니즘이 작용하기 때문에 젠더별로 구분해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서 본 연구는 제2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자료는 50세 이상 은퇴자로 은퇴한 지 5년 이내에 있는 남성 237명, 여성 294명이었다. 은퇴자의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선행연구들(김애련, 한내창, 1997; 김정현, 1995; 성미애, 1999; 윤현숙, 이미진, 2006; 이가옥, 이지영, 2005 등)을 참고해서 개인특성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구직활동 여부, 저축 유무, 심리적 건강상태, 가족특성 변수는 혼인상태, 세대구성, 월평균소득, 가계수지, 동거 및 비동거 자녀의 경제적 도움 여부, 정기적 소득 유무, 은퇴 전 직업특성 변수는 은퇴 시점, 은퇴 연령, 은퇴자발성 여부, 은퇴 전 취업형태, 은퇴 전 종사상 지위, 은퇴 이유로 선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는 집(주거상태나 주거환경), 이웃관계, 경제적 상태, 친구관계, 가족관계, 부부생활, 건강, 생활전반에 대한 삶의 만족을 측정할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자료는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Cronbach's α 계수, t검증,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 은퇴자의 경우 은퇴 후 생활만족도는 26.09점(SD=4.72), 여성 은퇴자는 24.01점(SD=4.56)으로, 남녀 은퇴자 모두 보통 이상의 은퇴 후 생활만족도를 보였으나 집단 간 차이가 있어($t=5.14^{***}$), 여성보다 남성이 은퇴 후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둘째, 남성 은퇴자의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는 심리적 건강상태($\beta=.51^{***}$), 월평균소득($\beta=.36^*$), 혼인상태($\beta=.19^{***}$), 비동거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여부($\beta=-.18^{**}$) 순서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변수들이 은퇴 후 생활만족도를 54% 설명하였다. 여성 은퇴자의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는 혼인상태($\beta=.43^{***}$), 심리적 건강상태($\beta=.35^{***}$), 동거자녀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여부($\beta=-.14^*$) 순서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변수들이 은퇴 후 생활만족도를 66%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은퇴자의 은퇴 후 생활에는 심리적 건강, 혼인상태, 경제력이 삶의 만족을 높이는 중요한 자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 은퇴자의 경우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부양자 역할을 요구하기 때문에 월평균소득 수준이나 비동거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 상황은 삶의 만족에 중요한 변수가 됨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성 은퇴자의 경우 남성에 비해 동거 자녀와 접촉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거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 상황은 삶의 만족을 떨어뜨리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퇴 이전부터 심리적 건강 상태를 유지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의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하며, 은퇴 후 시기가 길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은퇴 이전부터 노년기 경제생활을 위한 재무 설계 내용도 필수적으로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